

1-5-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요엘 2:1-13

말씀제목: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한 보상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계 22:12-13)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사도바울은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빌 2:16)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견디며 달려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에 그가 받을 상에 대해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

만큼 보상을 면류관들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빌 3:17)

이로 인하여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날에 대하여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였으며 그 날과 그 시는 모를지라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왕도 자신이 바라는 평생 소원에 대하여 말할 때 이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오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살전 5:1-3, 살후 2:3)

지금 이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 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때가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엘서로 돌아가서, 요엘서 2 장은 그리스도의 날에 휴거되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은 주 여호와와 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 역시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LORD 는 주 여호와를 의미하고 Lord 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여호와와 의 날에 지상에 그와 함께 내려오는 장면을 통해 휴거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재림의 날에 함께 받게 되는 엄청난 보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홀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에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 낼수 있으리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돌이키심이라.”(욘 2:3-13)

선지자 스카랴도 주 여호와와 의 날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슌 14:1-4, 9) 아멘! 할렐루야!